

하나님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기독교교육주간 아침 기도회가 20일(월) ~ 25일(토)까지 아침 5시 30분에 있습니다. 방별로 찬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공동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제 203회기 평양노회가 21일(화) 대전 대흥교회에서 모입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선교 바자회가 25일(토) 11시-3시까지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후에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미숙 권사 (감사)

박광희 목사 · 이근자 사모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예나 청년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오르단 중국

제 42 - 42호

2025년 10월 1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 마음

어둠을 밀어내는 새벽의 여명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불빛을 하나 둘 켜 줄 때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머물 시간이지만, 기도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새벽을 깨운 지체들의 작은 몸짓은 안일함과 나태함을 몰아내고, 새로운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굳은 의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교육주간에 드리는 이번 새벽기도는 단순한 행사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다시 훈련하고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이자,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숨김없이 서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큰 은혜입니다. 서로의 삶은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며,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교회는 진정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한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됩니다.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중보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등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울고 웃는 신앙의 한 가족이 됩니다.

요즘 우리는 전쟁과 불안의 소식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화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아픔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전쟁 중인 그 땅에 하나님의 참된 살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온유한 힘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그분의 뜻과 의도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용기와 지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개혁과 갱신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개혁은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룰 힘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교회개혁과 신앙의 갱신을 이룹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한 주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새벽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회복되며,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이번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가 단순한 한 주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한주간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 로마서 1장 1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47, 357 / 440
기도 : 서병욱 집사
성경 : 여호수아 17장
제목 :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요셉자손)

1.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해석: 지파의 인원수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땅을 분배했다.
적용: 그리스도인의 분배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받은 묵에 순종하자.
2. 들어간 성읍들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해석: 성읍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적용: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비하자.
3. 땅의 분배 후 영토가 부족하면 산간이나 가나안 사람이 있는 곳을 개간할 수 있다.
해석: 분배받은 땅이지만 필요에 따라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적용: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추석 연휴가 한참일 때의 일입니다
간간히 들려다 본 스투드에 유독 젊은 농부의 고구마 세일즈 광고
글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우리 친술이 또래의 청년이 파는 고구마. 도
시에서 갓 귀농한 초보 농부.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1kg당 3천 원 정도 저렴하니 “오~~해자네”
댓글을 달고 주문을 하고 응원의 덕담도 남기고... 쓴 게 비지떡일까봐
살짝 염려도 했지만 배송된 고구마는 올해 먹어 본 것들 중 가장 달고
맛있었고 구매후기도 나름 공들여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른 손님들 중에는 불만
의 글 환불요청을 하며 저에게도 화살이 날아오는 일이 생긴 겁니다.
한통속이 아니냐면서요... 고구마를 씻어 보니 썩었다. 후기에 나온
그 고구마 보다 왜 내 고구마는 터무니없이 작냐...

그저 같은 공간에서 판매글을 봤고 같은 경로로 주문한 동일한 구매
자인데 어찌 이리 억울한 일이... 익명의 게시판 세계이라도 참 언짢
았지만 더 억울할 청년 농부의 처지를 생각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게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저도 참 성질 많이 죽었습니다ㅎㅎㅎ).

농산물이다 보니 실수로 파손된 상품을 농칠 수도 있지요 이것은 교
환을 해 주면 될 일입니다. 자기 고구마가 터무니없이 작다고 했던 고객
님은 옵션을 한입크기를 선택하셨더라고요. 저는 특상으로 구매 했구요.

요즘 들어 사람들이 대체로 화가 많습니다.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또 불공평한 것을 못 참습니다. 신중하게 상황
을 살펴보기 전에 냅다 내 손익을 따지고 사이버상이라면 더욱 쉽게
화를 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떡해야 할지...

옛날에도 각박한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너무
도 따스운 시절이었던것은 아닌지...

이리 말 하는 저 또한 역시 많이 낡은 이가 맞는거 겠지요??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27 : 1, 4
26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15 : 7
9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재훈 목사

로마서 1 : 1-17
546

설교자
그루터기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99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نگ위 정태정 / 봉헌위원 : 전선희 / 꽃꽂이 : 김영하
돕는 이들 :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의미 복음은 헬라어로 유망꺈리온입니다. 그 뜻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유망꺈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승전보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전령은 별개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인간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무력하게 죽임을 당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자신의 신성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승리와 통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이 관여할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려는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을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석용범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높고 푸른 하늘, 선선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 물들어가는 나뭇잎과 계절에 맞게 피어나는 꽃들이 찬란하게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꾸러기들에게는 뛰어놀기 딱 좋은 계절이지요!

노래 부르기 시간에 달님의 입맞춤에 빨개진 코스모스, 장다리꽃에 앉은 잠자리, 익은 벼를 닮아 누래진 메뚜기, 밤과 감처럼 익어가는 가을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음률놀이 시간에는 모자와 안경, 머플러와 셔츠를 입고 다양한 허수아비가 되어 가을 정취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잦아서 고구마를 언제 캐나 싶었는데 수요일 반짝해가 나서 후딱 고구마를 캐했습니다. 사과 호미로 선생님들이 고구마를 캐내면, 꾸러기들은 흙을 털어낸 후 부지런히 박스로 날랐습니다. 도중에 팬스레 고구마도 없는 흙을 파거나 땅 속에서 만난 벌레에 정신이 팔리기도 했지만 다함께 힘을 모아 한 고랑에 심긴 고구마를 다 캐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고구마 한 꾸러미씩을 들고 갔는데 아마도 며칠 후에는 맛있는 요리가 되어 식탁에 오르겠지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긴 연휴를 보내고 등교하니 살짝 방학 끝내고 개학한 것 같은 기분 이 잠~간 들었다가 금방 학교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먼저 월요일 첫 시간인 예배 시간에는 이 달의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생각하고, 올해 선교바자회로 도움 곳인 민들레공동체와 예담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민들레공동체와 예담교회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어린이 친구들의 눈빛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민들레공동체와 예담교회

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어린이 친구들의 눈빛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열심히 놀고 공부도 하고 지내다보니 금세 금요일 되었어요. 금요일 오전에는 살짝 긴장되는 도보여행 예행연습이 있었습니다. 학교 뒷산 소풍 길과 축석, 그리고 귀락마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학교로 돌아오는 두 시간 남짓 걸린 연습이었습니다. 줄을 맞추고, 길을 건너고,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함께 걸기 위한 연습들을 해보니 열흘 앞으로 다가온 도보여행이 확 실감났습니다.

요즘 어린이학교에는 아픈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장염으로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선교바자회와 도보여행을 앞두고 있으니 더욱 건강을 잘 챙기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비가 추적추적 자주 내리면서 온도가 낮아지던 한주였습니다. 긴 연휴를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등교한 바로 그날에 밤이 깊어가도록 수다를 멈추지 않았습니 다. 그 사이에 일교차가 워낙 커져서 그런지, 독감에 걸린 멋쟁이들이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동심화학습은 <APEC과 국제 정세>라는 새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열린수업 시간에는 5학년의 해외문화체험학습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며, 선물도 전달하는 좋은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드디어 테마여행을 본격적으로 모둠별로 모여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는 기독교교육주간으로 보냅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느라 평소보다 피곤하겠지만, 그 안에서 큰 은혜로 신앙이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많은 멋쟁이들이 기대하던 연합선교 바자회까지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이번 연도 유럽여행을 다녀온 멧쟁이 5학년 이흥인 입니다. 이번 유럽여행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청소년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럽 청소년들은 생각과 태도가 한국의 청소년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대부분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제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에게 다가가 몇 마디 나누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대만에서 벨기에로 유학을 온 친구는 16살에 유럽으로 온 이유를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서"라고 답했고, 다른 친구들도 "의사", "교사", "목사님" 등 각자의 꿈을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해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그렇게 여유롭고 당당하게 꿈을 말하는 모습이 참 부러웠다. 한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입시를 위해 생각이 닫히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의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각자의 장점을 중요시하는 멧쟁이학교의 철학과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유럽 청소년들이 여유로운 이유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개인의 욕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자유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인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이 항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한국 사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여행은 저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새롭게 만난 세상과 사람들이 잠시 쉬고 있었던 저에게 강렬한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저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큰 탈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게 기도해주신 교인 분들과 도움 주신 분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른꿈사랑방 이흥인 학생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91장, 435장

성 경 : 로마서 12장 9-21절

말 씬 :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휴전협정중인 중동지역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휴전협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동에 평화가 왔다고 말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자기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예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사역공동체인 예달교회를 보며 다양한 공동체의 사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달교회의 사역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다음 주 기독교교육주일 새벽기도 때 마음을 모으고 안전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공동체에 속한 연약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긋은 날씨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을걷이를 했습니다. 멧쟁이들과 함께 깨도 베고 고구마도 캐내어 깨끗이 씻는 작업을 했습니다. 실행위원회 회의와 더불어 10월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을 축하하는 전체 모임을 지난 목요일에 가졌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숲중앙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